

위대한 창조자, 인민의 아버지의 불같은 한생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이 숭엄하게 새겨지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며 사회주의대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놓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선군혁명명도사의 길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졌는가.

선경의 새 집 둘러도 인민들 좋아하는가, 사랑의 공원 찾아도 인민들 기뻐하는가 물으시며 가장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새겨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는 오늘날 당보지면에 정중히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어 조국전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민족의 대국상으로 온 나라에 피눈물이 흐르던 주제 83(1994)년 11월 9일 12시, 우주공간을 헤가르는 혁명적대의 전파를 밀어내며 수도 평양의 하늘에 중대방송이 힘있게 울려 퍼졌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51호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대 대하여>》...

은 세계가 놀랐다. 진보적인류의 경란의 목소리가 지구를 휘감았다. 우리 공화국의 《봉곡론》, 《연락록》을 떠벌어던 원수들은 기절초풍하였고 크나큰 상실의 아픔으로 피눈물을 쏟던 천만군민은 위대한 선군명령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넣은 진군로에 들어섰다.

선군의 위력으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정치신조였고 창조방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는 나날에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핵심, 기둥이 되어 부강조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던 현명하게 이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고도 전체 인민이 군인기질, 군인태도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게 되었다.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 평양-함산관광도로와 청년영양도로, 9.9월거리, 광명성제요소, 천지개벽된 협동농장과 거창한 자연호수식물원들,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철거세대주민들을 천여비의 심정으로 위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절절하신 말씀이 뜨겁게 울리고 있다.

발전소건설에 앞서 선진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는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라고. 철거세대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라고.

감동없이 받아안을 수 없고 눈물없이 되새길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인민과 더불어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에 얼마나 새겨져있는것인가.

인민사랑, 인민중시! 바로이정신, 이신념을 불같은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주체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로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는 나날에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핵심, 기둥이 되어 부강조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던 현명하게 이시었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고도 전체 인민이 군인기질, 군인태도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명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게 되었다.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들, 평양-함산관광도로와 청년영양도로, 9.9월거리, 광명성제요소, 천지개벽된 협동농장과 거창한 자연호수식물원들,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삼수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철거세대주민들을 천여비의 심정으로 위해주시던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 89(2000)년 11월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설계혁명, 건설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4년전 15일 전투의 나날 일군들에게 건설공사를 음악

작품을 창작하는것과 비유하면 설계하는것은 작사하는것과 같고 시공하는것은 작곡하는것과 같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때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참으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며 조국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를 확증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철주야의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눈굽을 뜨겁게

하고있다.

건설자마다 천막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고 외곽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로 또 둘러시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무려 8차례나 찾으신 최후의 최후의 순간설장, 바로 이 대고조진투쟁과 더불어 우리 장군님을 만나보려면 최후의 최후의 순간으로 가자는 시대의 메아리가 높이 울려 퍼졌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최후의 최후의 순간이었다.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이 한생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불철주야의 창조강행군과 더불어 주체건설혁명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심장깊이 기억하소서.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명가사와 명곡이 조화롭게 어울린 한편의 정교한 음악작품과도 같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완성하여 우리 인민들과 자라나는 세세대대에게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아버지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을 길이 전하는 시대의 숭엄한 송가이고 주체건설물들에서 울려나오는 대교향곡이 아니라.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건설발전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즐겁게 이어지고있다.

또 한번의 위대한 선군명령, 창조자의 거창한 영감을 높이 모시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군건설에서 우리의 조국건설은 얼마나 눈부신 비약을 이룩하였는가.

창건거리, 룡린인민유원지, 은하과학 피눈물의 1994년을 보내고 맞은 새해 첫 아침부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똑딱딱과 꿩기발도 달게 여기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88만 3,940여 리에 달하는 강행군 장정을.

10여년나 마단벌 숲을 벗지 못하고 불굴의 의지와 희생적인 헌신으로 대고조와 흥남을 비롯한 조국방방곡곡에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건설사상과 업적을 꽃피웠던 아버지장군님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앞날을 얼마나 아름답고 창창한가.

본사기자 허명숙

인민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나날에

스스로 걸머지신 빛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주제 50(1961)년 4월 어느날 깊은 밤 장제에 위치한 학생소년궁전의 건설정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설일군들을 부르시었다.

그들이 가지고온 학생소년궁전도형사본도 정히 맞들어주시며 방으로 들어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선 말씀하시었다.

오늘 어린이들의 방을 들으니 아이들이 《높고 아름다운 아동궁전 수령님이 지어주신다네》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 방을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밤은 늦었지만

자신께서 오늘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니 우리가 큰 빛을 짓게 한다고, 우리 빨리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아이들에게 진 빚을 하루빨리 갚아주고 또다시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아이들에게 진 빚, 정녕 그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누리신 기쁨이었다.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단단해지고 더 번영해지고 더 밝아진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몸소 일군들을 배려주시면서

창광거리 2계단건설에 비끼는 비범한 예지

건설부일군대감들이 진행되고있는 지금 누구나 지난 세기의 평양번영기에 대해서도 감회깊이 추억한다.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며 건설의 전성기를 펼친 일군들이 그 나날에는 창광거리 2계단건설을 위해 수놓으신 아버지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도 별처럼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양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건축건설력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창광거리의 위대한 장군님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혁명적 령도에 의하여 완전히 우리 식대로 새롭게 설계되고 건설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창광거리 1계단건설에 이어 2계단건설을 몸소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 성공과 보장을 위하여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창광거리 2계단건설에 내재하고있는 이러한 부족점에 대하여 제 때에 예리하게 포착하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건설에 앞서 친히 지리형상안과 그와 관련한 수많은 문헌들을 보아 주시며 1계단거리가 아무리 잘되었다고 하여도 2계단에서 절대로 반복할수 없으며

새롭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일군들을 따듯이 일깨워 주시었다.

창광거리 1계단에 지은 집보다 2계단에 지은 집이 떨어지는 안된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고 요구였다.

하기에 이이께서는 설계에서 1계단건설의 기준을 뛰어넘어 더 통이 크게 하며 지리형상과 모양에서뿐 아니라 살림집형식과 내부시설도 지금까지의 살림집건설에서의 우점과 교훈을 종합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새롭게 건설시킴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여기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인민에게 보다 높고더욱 훌륭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있었으며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안으로 대하고 통이 크고 대담하게 실현해나가는 절세의 위인의 비범한 령도풍모가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이러한 요구성으로 하나의 건설대상물

을 놓고도 람구와 사색을 깊이 하시며 일군들의 사색을 띄워 주시었고 그들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평양교외호텔도 그중의 하나였다.

창광거리 2계단에 있는 평양교외호텔은 원래 몸통이 가느다란 독립적인 건물로 설계되어있었다. 그런데 도형을 보아주시던 자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 두 건물을 수심충남에서 복도로 연결시켜 하나의 건물로 완성하도록 깨우쳐 주시었다. 그의 가르치실대로 두 건물을 연결복도로 이어 놓으니 평범하던 그 건물들이 놀라게도 되고 우아하고 독특한 건물로 되었다.

순간에 평범한것을 새롭게 비약한것으로 빛내주시는 비범한 예지!

그 자리에서 일군들은 로동당시대의 하나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어떻게 그처럼 빛나게 마련되었는지가를 따지느니 하며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본사기자 김준혁

물란리지역에 물복을

사이에서 찾아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미 한달전에 장군님께서 창광원과 평양체육관사이에 창광원까지를 잡아주시었다. 하여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물복을 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왜 자리가 좁을까봐 걱정이고 소탈하게 웃으시며 창광원까지를 잡아주시는 쪽을 약속하면서 찾아야 할 창광원, 체육관, 수영장, 물놀이장과 함께 분수와 빙상

경기장까지 건설하여 물을 종합적으로 쓰는 기지로 만들어주고 한다고 마다마다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물을 종합적으로 쓰는 기지! 오랜 세월 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원한이 서리던 옛 토성평에 창광원과 분수, 빙상관을 건설하여 지난날의 물란리지역을 물을 종합적으로 쓰는 기지로, 물복을 누리는 교장으로 만드시려는 인민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다.

고결한 충정으로 일떠세우신 창조물들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모두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있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선 얼마 안있어 맞이하게 될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70돐을 계기로 완공하게 되어 있는 모란봉경기장(당시)개건 확장공사에 대하여 마음쓰고 계시었다.

오늘날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절한 청을 마다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모란봉경기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 아버지수령님을 모시자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교는 그걸로 경기장에 나가서도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새로운 속도 창조로 적극 불러일으키

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에 떠받들려서 김일성경기장은 짧은 기간에 그 형식과 규모, 내용이 있어서 으뜸가는 경기장으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충정의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주체사상탑, 개신문, 만수대의사당, 빙상관, 청류관, 서해갑문, 검덕의 제3선광장, 평양교외호텔, 5월 1일경기장, 광복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이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80년대속도창조의 불길드 높이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으로

하고 사회주의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을 일떠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의 온넋을 불태우시며 유환관철의 길로 쉬임없이 달려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언제나 마음속에서 언제나 자리잡고있었는것이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아버지수령님의 넘칠듯한 사랑을 나누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식령속도》를 창조함에 대한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어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 일떠세우시려고 수령님의 거룩한 체구가 력력히 어려있는 사회주의대지를 반듯하게 정리

본사기자 림정호

병사들에게 하신 호소

지난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당에서 제시한 기일안에 무조건 끝낼수 있는 확고한 결정을 열어놓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공지이며 최고사령관의 자랑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겨워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며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원수님을 우리들 군인건설자들에게 최고사령관이 다시금 호소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최고사령관이 병사들에게 하신 호소, 정녕 이것은 군인건설자들에게 10월의 결승선으로 단숨에 떠밀어준 강한 추동력이었고 위대한 기적을 날게 한 원천이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10월 10일까지는 며칠 남지 않았다, 당장건기일인까지 문수물놀이장을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최고사령관이 다시금 호소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최고사령관이 병사들에게 하신 호소, 정녕 이것은 군인건설자들에게 10월의 결승선으로 단숨에 떠밀어준 강한 추동력이었고 위대한 기적을 날게 한 원천이었다.

본사기자 한영민

본사기자 한영민

본사기자 림정호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특대사변-조선의 첫 실용위성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 1뿔을 맞으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과학기술위성제작과 발사에 성공한것은 래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대장사이며 천만군민에게 필생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것을 뚜렷이 보여준 특대사변이었습니다.》

주제 101(2012)년 12월

택한것과 관련하여 천명된 조선의 립장이었다. 반인륜적이고 횡포무도한 날강도적외국에 통쾌한 대답을 준것이었다.

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거세찬 충격을 안아온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선택이었다. 모택동의 소굴들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론의가 분분히 벌어지고 최첨단외국수단들과 방대한 현대적무장장비들이 《용성》과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태평양과 그 주변수역들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내린 선택이었으므로 하여 그 충격은 실로 비상한것이었다.

그러나 실사 그보다 더한 온 세상의 무장장비들이 다 물러나다 하여도 조선은 달리 선택하지 않았을것이다. 절대로 포기할수도, 추호의 양보도 할수 없었던 그 선택의 리유는 바로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라라는것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었기때문이다.

-조선사람들은 왜 김정일명도자의 유훈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결사관철하려 하는가.

만약 세상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우리 인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대답할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훈속에 변형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있고 존엄높고 행복한 우리 인민모두의 삶이 있기때문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전에서 다진 이 나라 인민의 총성의 맹세였고 조선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존엄한 투쟁이었다.

정녕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재료거나 또 어떤 연료의 결합체이기 전에 우리의 빛과 심장, 꿈과 슬기가 빠져 되고 살과 피로 응결된것과도 같은 하나의 생명체였다.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었다. 결코 사연없는 《단순에》가 아니었던것이다. 장장 반세기를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자가 력력히 어려웠던 승리, 피눈물을 가슴에 모으시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고 노래하시던 그 모든 낮과 밤들이 안아온 환희의 《단순에》였다.

주제 101(2012)년 12월 12일,

그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첫 실용위성을 쏘올린 날인 동시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었던 원대한 리상과 고귀한 헌신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된 날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힘과 슬기, 담대한 배짱과 신념에 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명전에서 다진 조선인민의 피눈물의 맹세가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것이며 장차 이 나라가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갈것인가를 온 세상사람들이 집합한 날이었다.

며 싸워야 하며 창조적 세계와 리상의 높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실천적모범으로 된다. 그의 행도를 받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열백만 뒤집힌다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도 있고 존엄높은 우리의 삶과 변형, 영리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새겨안았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곡면을 열어나가자!》는 투쟁구호를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나온 한해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희한하고 멋있는 창조물들을 눈부신채로 밀어붙였다. 우리의 휘황한 래일은 그렇게 다가오고있으며 모든 승리로 그렇게 이어지고있다.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 계속 날아올라간다. 그러나 우리의 위성이 백개, 천개를 넘어 무수한 별무리를 이루게 될 먼 후날에도 인민은 결코 《광명성-3》호 2호기를 잊지 못할것이다. 백두산천출유인의 현명인 명도따라 온갖 원수들의 도전과 만년시련을 파궤히 짓부셔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광명성-3》호 2호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총정의 별, 승리의 별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발사!

주제101(2012)년 12월 12일 9시 49분 46초는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조선인민의 삶의 증경사와도 같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새로운 장을 알리는 선언문과도 같은 력사적문건에 백두산위인의 힘있고 활달한 필체가 새겨져있다.

《담중양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정은

2012.12.12 그의 발사명령을 받은 운반로켓트 《은하-3》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싣고 마침내 기세찬 평음을 터치며 하늘로 치솟았다.

은몸이 그대로 위성과 함께 우주로 날아올랐지만 같은 그 시각에 결정되는것은 단지 과학기술적문제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조선인민의 힘이 어떤것인가, 세계에서 자기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낼수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일대 격전이였다.

반세 몇십년전부터 위성을 쏘올렸다고 하는 나라들도 불리한 기상조건때문에 위성발사를 주저하는 12월에 단행하는것으로 하여 더한층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흘렀다.

드디어 9분 27초만에 우리의

단숨에 -

첫 실용위성이 자기의 궤도를 우주에 새기었다. 김정일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담아 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전파를 타고 온 행성에 퍼져나갔다.

진보적인인류만이 아니라 적대세력들까지도 우리 위성발사성공의 경란할 의를 다투어 평가하였다.

《주체사상이 우주에 도달하였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통쾌한 사변》,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멸망한다는것을 재확증한 력사적인 사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배짱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변》, 《세계가 조선을 다시 알게 한 위대한 사변이다. 조선민족은 위대한 민족》...

피눈물이 흐르리라 예측하였던 12월의 조선에서는 경축의 노래소리와 함께 환희의 춤물결이 일렁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은 우리의 유훈을 빛나게 결사관철하는 것으로 지켜드린 영웅적군대와 인민이 펼쳐놓은 총정의 꽃바다, 승리의 꽃바다였다.

《단순에》의 노래가 전인민적감정의 격랑을 일으키며 조국공간에 메아리쳐갔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또 하나의 노래가 조용히 울리고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눈물겹게 들으시던

영원히 빛나는 별

인류사의 갈피에는 크고작은 사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왔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꿈으로 간주하여오던것이 현실로 되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죄악과 폐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인류가 첫 위성을 쏘아올린것은 수십년전의 일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우주로 날아오른 허다한 위성들과 더불어 없는 하나의 위성발사로 하여 세계가 그토록 세차게 뒤흔어지던적이 없었다.

정의를 진보 위한 투쟁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변은 인류의 광성화평화번영의 리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되는 법이다. 세계자주화위업의 결속한 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의 하나였던 2012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정의롭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에서 또 하나의 리정표를 마련한

특대사변으로 21세기 년대기에 아로새겨져있다. 그것은 자주와 진보, 예측과 반동간의 괴할수 없는 력사적 대결이였으며 경에하는 나라는 사변들도 있고 인류에게 기이한 죄악과 폐해로 하여 세기를 넘어서도 아슬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사변들도 있다.

그를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한 력사적 분보기를 창조함으로써 피눈물의 바다에서 일떠선 그이의 전사, 제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지 않게 증명하였으며 그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시대의 본질과 창조기풍, 투쟁방식을 유감없이 파시하였다.

위성의 제작과 발사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적대세력들의 치열한 대결전에 이르는 전과정에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교훈한 총정과 빛나는 예지, 강인담대한 기상과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어떻게 살

살아야 하며 창조적 세계와 리상의 높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실천적모범으로 된다. 그의 행도를 받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열백만 뒤집힌다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현하는 여기에 강성국가건설의 지름길도 있고 존엄높은 우리의 삶과 변형, 영리한 승리가 있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새겨안았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곡면을 열어나가자!》는 투쟁구호를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나온 한해에 세상사람들이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희한하고 멋있는 창조물들을 눈부신채로 밀어붙였다. 우리의 휘황한 래일은 그렇게 다가오고있으며 모든 승리로 그렇게 이어지고있다.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 계속 날아올라간다. 그러나 우리의 위성이 백개, 천개를 넘어 무수한 별무리를 이루게 될 먼 후날에도 인민은 결코 《광명성-3》호 2호기를 잊지 못할것이다. 백두산천출유인의 현명인 명도따라 온갖 원수들의 도전과 만년시련을 파궤히 짓부셔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광명성-3》호 2호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총정의 별, 승리의 별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로동신문》 2012년 4월 18일부에 실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유엔안보보장리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것이다.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12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회망깊은 새해의 첫새벽처럼 소중한 간직된 뜻깊은 날이다. 내 조국의 대지를 용용히 밟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날아오른 그날로부터 한해가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거울 열기를 더해주며 여전히 식을줄 모른다.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치위성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올릴것이다.

과학기술목적을 위하여 우주를 힘차게 정복해나가는 조선의 앞길은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발사를 두고 유엔안보보장리사회에서 천만부당한 의정성명이라는것을 제

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분비전 항일혁명렬사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찾은 대강습참가자들은 중앙홀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의 강령의 명장 김일성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전승기념탑 《승리》상 앞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기념관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전하는 시대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는 과학자들

위성관제종합취소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전람회 및 전시회 진행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인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니인 리보익이사의 묘, 어머니인 김강선선생님과 어머니인 강반선선생님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천재적예지와 신성한 사상리론활동,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가슴에 품고 되새겼다.

대강습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수령김일성위상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재보로 빛내여주시고 주체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만들어주시는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어머니의 동생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렬사릉의 화환전진대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항일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력사통을 돌아보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백육같은 충정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과 인

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분비전 항일혁명렬사들의 투쟁정신을 깊이 체득하였다.

대강습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기념관참관객들을 돌아보았다.

화환전진대 《영웅들의 빛》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전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영웅전사들의 삶을 금별로 빛내여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송고한 도덕의 리상과 뜨거울 열정을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력사표를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우리 당의 정력적인 명도밑에 우리 당의 건설된 은하와 하차거리와 미림과 마구락부,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참관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온갖 로고를 바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사랑의 세계를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가슴깊이 새기고 강성국가건설의 전 투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양체육관과 3대혁명전시관에 전시회되고있다.

전람회와 전시회들은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계획되고 발전하여온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기고 빛내여나가며 당의 독자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이 전람회와 전시회장들을 참관하고있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사진전람회와 도서전람회, 설계형성안전시회도 진행되고있다.

사진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 주체건축분야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로고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으며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있다.

사진문헌들과 사진자료들을 보며 대강습참가자들은 해방후 보물창고수공사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건설력사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밑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선 거창한 변혁의 년대기라는것을 다시금

경감을 하고있다.

그들은 우리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건설장들을 찾고자 하시며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 전세위인들의 헌신의 로고를 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도서전람회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건축에 관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덕성도, 건설부문의 기술도서들이 전시되어있다.

주체건축창조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건축총서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일관된 인민대중 중심의 건축학설인 전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과 도서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건축미학사상과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훌륭히 일떠선 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공공건물, 살림집, 원림설계형성안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발전면모와 전망을 소개한 220여점의 건축설계형성안들이 설계형성안전시회장에 전시되어있다.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관에 꾸려진 견제품, 건설장비, 시공공법, 기공구전시회장에도 참관자들이 그칠새 없다.

견제품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생산지들에서 출품한 수천점의 기본건설재료와 건축마감재료, 건구, 가구 등이, 건설장비전시회장에는 우리 나

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널리 개발리용되고있는 각종 건설장비들이 소개되고 함께 전시되어있다.

시공공법, 기공구전시회장에 전시된 직판물, 다매체편집물들과 근 1200종에 달하는 기공구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건설실천에서 온을 내고있는 선진적인 공법들과 기공구들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고 있다.

전람회, 전시회장참관을 통하여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은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맡은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리더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에 파도르에서 개막된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가 진행되고있다.

8일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전시회장에 모셔져있다.

전시회장에는 주체적청년운동의 강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렬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으며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훌륭히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소개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과 경에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화첩,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청년학생대표단, 국제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청년들이 승리의 력사를 계속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 진보적인 민들과 청년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에게 굳은 리더성을 보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으며 우리 대표단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그들은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주체적청년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어나가는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로씨야 특별전권대사 연회

로씨야연방 헌법제정 20주에 즈음하여 알렉산드르 페코민 주 로씨야연방 특별전권대사가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성외무부

파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연대통령과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회 진행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 도착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연대통령과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로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제국주의에 대한 양보와 굴복은 죽음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더욱 횡포해지고있다. 맹진종시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오만해질대로 오만해져 자유와 평화, 민족반영을 위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고 세계를 저들이 관을 치는 무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정치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차이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특출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떠벌었다.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21세기에 미국이 계속 인권과 자유,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제했다.

서방의 일부 세력들이 《국제사회는 <유일초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영원 필요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말대로 미국은 세계에는 저들밖에 없는 것처럼 안하무인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자주, 평화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떠벌인다. 인민대중의 전정인 없는 평화로운 환경속에서만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념원은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실현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인민들의 념원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자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념원은 제국주의의 침략력을 반대하는 지렬한 투쟁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제국주의는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전진하고 그로 하여 저들의 처지가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침략과 전쟁책동에 매여달리면서 역사적 진전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다.

자기의 침략적본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일삼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서 변하는것이 있다면 침략적본성이 아니라 침략수법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항상상적으로 대하여 그들의 《혜택》을 바라는것은 어리석은것이다.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 자주권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을것밖에 없다. 이라크의 실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한때 미국에 강경하게 맞섰지만 페르샤만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공격과 위세에 공포를 느끼고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페르샤만전쟁이후 이라크가 완전히 충을 놓고 항복할것을 요구하면서 10년이상 계속적인 공습과 가혹한 제재를 들이쳤다. 미국의 힘과 압력에 눌려온 이라크는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라크지도부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나라의 중요시설들을 포함한 군사대상물들을 강제사찰에 내맡겼다. 나중에는 대통령경전에 대한 사찰까지 허용하였다. 이라크는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침공을 모면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이라크가 양보하면 할수록 미국은 이라크에 더 큰 압력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군사적압력을 들이대곤 하였다.

결국 미국은 2003년 다년간의 제재와 공습으로 약해졌던 이라크에 대해 무력침공을 강행하여 손쉽게 싸당정권을 뒤집어엎었다. 한치의 양보와 후회, 굴복으로부터 시작된 사태가 가져다준 후과는 이처럼 치욕적이었다.

리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6년 4월 미국은 전투기들을 출동시켜 리비아의 수도와 항구도시에 폭탄을 퍼부어 가다피의 처와 양말을 죽였다. 미국은 가다피가 이호된 공격을 받은 다음 더는 서방과 강경하게 대결하지 않을것이라고 보았으나 그는 《우리는 마지막 한방울의 원유가 다 탈 때까지 유정들을 쟁그리 불태워버릴것이다. 만약 미국이 리비아를 침략한다면 한방울의 원유도 얻지 못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리비아는 미국의 편이든 군사적공격과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통하여 이라크를 타도한 직후인 2003년 12월 리비아는 굴복하였다. 리비아는 자국의 비상수기계획을 공개하고 그것을 철회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불평을 비준한 가다피는 그것을 《혁명한 결정》, 《용감한 행동》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자들의 강권행사에 투항하는 길이었다.

하다면 절대로 제국주의에 투항하지 않을것이라고 다짐하고 오래전부터 반미강령이 강하다고 소문난 가다피는 어떻게 되어 하구아이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었다.

미국은 9.11 사건을 계기로 《반테러전쟁》을 광범적으로 감행하면서 핵전쟁공격전략을 공공연히 제창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였다.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불평국가》로 지정된 리비아는 다른 나라의 비극에서 옳바른 교훈을 따지 못하였다. 가다피는 미국의 남강도적인 전쟁위협과 허장성세앞에서 리비아 다음날의 공격대상에 될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하여 미국이 이라크공격을 개시한 2003년 3월부터 미국과 맺었던 화해무기계획회기와 관련한 회담을 벌

렸다. 2004년 1월 리비아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군사장비제거도면을 미국에 바치고 미국은 20여의 핵설비와 장거리미사일유도체제를 실어내었다.

미국은 리비아가 이렇게 나오자 당장 큰 대가를 지불할것처럼 높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리비아를 속속까지 벗기기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하였다. 리비아는 무장장비를 폐기한 대가를 지불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또다시 갱신하는것으로 대답하였다.

가다피는 영국의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였지만 아직 그 어떤 배상도 없다. 미국으로부터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지 긍정적인 행동이 있기를 바란다.》는 김빠진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소연에 불과한것이였다. 2011년에 미국은 이미전부터 준비시켜서 반란력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키게 한 다음 군사적행위를 가하여 수도 타라브스함락작전을 감행하였다.

리비아의 실태는 제국주의의 자들과 타협은 죽음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제국주의의 자들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 원칙적립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의 침략과 약탈성을 특특히 가려붙여 핵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벌리면서 핵공격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저들의 강권정책에 겁을 먹고 양보와 굴복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소동으로써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되돌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의 한걸로 여세를 나아가야 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

자들에 대한 환상은 타협과 양보의 전제로 된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빠지면 자연히 그에 기대를 가지게 되며 나중에는 타협과 양보로 《혜택》을 입으려는것과 같은 얼빠진 생각을 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자들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야 한다. 적에 대한 공포심은 양보와 추종, 굴복을 낳게 한다. 적을 무서워하면 주눅이 들어 제 할 소리로 제 할 일도 못하며 자주성, 주체성을 잃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게 된다. 이것은 제존으로 노예의 운명을 걸머지는 비극적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자주적대응방식으로 미국의 강권정책에 초강으로 맞서야 한다. 제국주의의 자들의 행사는 힘으로 맞서 무자비한 정벌로 대답하는것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지는 길이다. 그러자면 군사적힘을 키워야 한다.

자주와 진보를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는 적들과 당황히 맞서 강경하게 싸우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는 길이다.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가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선 조선반도는 정보와 반동, 평화력량과 침략책사의 가장 심각하고도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핵전쟁정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이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주기적으로 벌리면서 핵공격을 일삼고있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저들의 강권정책에 겁을 먹고 양보와 굴복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소동으로써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되돌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자주의 한걸로 여세를 나아가야 할것이다.

외국인들의 반향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품모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김일성상사사회, 국제김정일상사회, 국제김정일상사회 서기장인 주체사상상구제연구소 리사장 비슈와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그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위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총칭의 마음은 변함없이 헌신하였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다. 몽골청년련맹대표단 단장이자 유오현 명호바드는 적동원정정임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다. 그의 이 같은 인민의 령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그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화신이었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그에게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로씨야 나호드카 겔로노예 호자이스트브유한책임회사 부사장 배베 미셴코는 이렇게 강조

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받으신 훈장들과 메달들, 명예칭호들을 보면서 그이 아시아말로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위인임을 확신하였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다.

그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그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이 땅위에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을 방문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총칭의 마음은 변함없이 헌신하였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다. 몽골청년련맹대표단 단장이자 유오현 명호바드는 적동원정정임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다. 그의 이 같은 인민의 령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그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화신이었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그에게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로씨야 나호드카 겔로노예 호자이스트브유한책임회사 부사장 배베 미셴코는 이렇게 강조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다. 그의 이 같은 인민의 령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그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인간사랑의 화신이었다.

조선방문을 통하여 그에게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깊이 절감하였다.

로씨야 나호드카 겔로노예 호자이스트브유한책임회사 부사장 배베 미셴코는 이렇게 강조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 총회 진행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가 3일(아주)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2014년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활동정형이 총화되었으며 2014년 사업계획이 토의되었다.

아시아의 회회의 제 6 차 총회 에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이 연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있는 아시아의 회회의 제 6차총회에서 9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 단장인 김일수부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총회가 가지는 의의와 아시아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적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경제위기의 후과가 지속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현실은 아시아나라 인민들이 더욱 굳게 단결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포괄적협조로 모든 난관들을 이겨낼것을 요구하고 있다.

습근평주석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할데 대해 강조

습근평 중국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얼마전 제남군구의 부대들을 시찰하면서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국제무대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편대성은 운동이 강화되고있다. 얼마전 유엔본부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향하여 유엔위원회의 주체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세계편대성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본부 관리들,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대표 등이 참가한 행사에서는 사진전시회와 팔레스티나영화감상회가 있었다.

이번 행사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회담이 재개된 속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하여 예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팔레스티나가 유엔비안권주위를 획득하고 20여